

최초기 불교 경전 『테라가타』의 실존적 업론

석오진(釋悟璡)*

- I. 서론
- II. 일반적 업론과 실존적 업론
- III. 『테라가타』의 실존적 업론
- IV. 맺는말

I. 서론

『테라가타』 (*Theragāthā*; *Therag.*, 장노시, 長老詩)는 최초기 불교 경전 『콧다카 니카야』 (*Kuddaka-nikāya*; 소부, 小部)¹⁾ 제8경에 속하며, 전체 21장 1279 시문과 서장 제3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전은 『테리가타』 (*Therīgāthā*; *Therīg.*, 장노니시, 長老尼詩)와 함께 종교적 또는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정시적 형식에 의한 표현은 고대 인도 문학의 시성 칼리다사(*Kālidāsa*)²⁾에 의해 묘사된 작품들 또는 고대 인도 최고의 찬가라 할 수 있는 『리그베다』 (*RgVeda*) 등과 함께 병행시켜 주목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³⁾

* 일본 공익재단법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동방연구소 상임연구원

1) 『콧다카 니카야』는 남전대장경 또는 파알리어 삼장(三藏), 즉, 티피타카(ti-piṭaka)라 불리는 고대 인도 언어의 일종인 파알리어로 기록된 불교경전 율장(律藏, *Vinaya-pitaka*)과 경장(經藏, *Sutta-pitaka*)인 장부(長部, *Dīgha-nikāya*), 중부(中部, *Majjima-nikāya*), 상응부(相應部, *Samyutta-nikāya*), 중지부(增支部, *Ānguttara-nikāya*)와 이상의 경전에 속하고 있지 않은 15개의 경을 모은 경전군을 소부 즉, 『콧다카 니카야』라고 한다.

2) Kālidāsa는 4세기경 활약한 인도의 시인이며 극작가. 그는 고대 인도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로 주로 힌두교의 푸라나와 인도 철학에 의한 시와 희곡은 시성과 극작가로서의 가장 높은 명성을 남기고 있다.

3) M.Winternitz, Dr.Gisho Nakano 역, 『불교문학』 (일본 인도학회, 1978년), pp. 79-89 참조.

내용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경의 인도 최초기 불교 시대의 장노 비구승들이 높이 고양시킨 종교적 이상과 윤리적 교설의 선명(宣明)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장노 비구들은 심오한 마음의 정적과 함께 종교적 이상과 윤리적 교설 실천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 읊은 시문으로서, 인간의 감각 기관적 또는 충동적인 감정은 일체 배제시켜, 참신한 수행자의 청정한 심경(心境)에 대한 내용이 본 경전 전체에 걸쳐 설해지고 있다.⁴⁾

『테라가타』는 『테리가타』와 함께 다른 『콧다카 니카야』가 고타마붓다의 교설 또는 그 전기를 기록하고 있음에 비해 확실한 표명으로 고타마붓다의 제자들의 말들만을 모아 전하고 있음이 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테라가타』는 당시의 생활문화에 있어서 불교의 업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자료적 가치로서, 더욱 인간적인 세간적 논리와 종교적 논리를 교차시킨 사상을 그 어느 경전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여러 파악리어 경전과는 별도로 이 『테라가타』만을 중점적으로 본 논제인 실존적 업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일반적 업론과 실존적 업론

불교의 업론(業論)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종교로서의 불교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불교 학계에서는 적지 않은 논설이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그 역사적 논고에 대해 필자가 새삼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 학계에서 최근 나라 야스아키(奈良康明)⁵⁾ 박사는 소위 업론은 일반적 업론과 실존적 업론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함이 마땅하다고 제창하고 있음은 새로운 학설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⁶⁾ 즉, 일반적 업론이란, 인간의 본질은 불멸의 영혼으로서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는 멸해도 영혼은 생전에 행한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당연히 가야

4) Prof. Dr. Egaku Mayeda: 「원시불교 성전 성립사 연구」(Sankibo, Tokyo Japan, 1964년), p. 733.

5) 1929년 일본 치바현 출생. 도쿄 대학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후, 인도 켐커타 대학원 졸업. 도쿄 고마자와 대학 교수 및 총장역임. 현재 고마자와 대학 명예교수. 인도학 불교학 전공.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의 한 사람.

6) Prof. Dr. Yasuaki Nara: 「슈타니파아타의 업론(상)」 (『藤田宏達博士還暦記念論集인도철학과 불교』 平樂寺書店, Kyoto Japan 1989), pp. 145-161; 같은 제목(하) (『인도철학불교학』 제4호, 北海道대학, 1989), pp. 41-61.

할 사후세계에 환생한다. 어떤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생전에 행한 그 행위, 즉 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며, 업은 반드시 잠재적 영향력, 즉 업력(業力)이 남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하게 죽음과 환생을 반복해 윤회하고 있다. 업론의 철칙은 자업자득과 자신이 행한 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는 과보의 필연성이다.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를 인간은 자신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타인이 대신 거둬들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은 반드시 자신의 업 또는 행위의 결과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행위, 즉 업과 결과의 관계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고방식은 현세의 상황은 모두 과거세의 행위, 즉 업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업론은 숙명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세에서 행한 선행은 미래세의 좋은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밝은 장래에의 희망을 가져 온다. 특히 윤회의 관념이 정착해 과거세, 현세, 내세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믿고 있던 사회에서는 이것은 현세의 사회적 불평등을 교묘하게 설명하고 더욱 안락한 내세를 바라는 사람들을 윤리적 행위에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동시에 이같은 사고 방식은 현재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유하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사회계층 또는 계급사회 그리고 남성과 여성, 신체 불구자 등에 의한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행도 자신이 과거세에 지은 악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불행이므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악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내세를 향해 선업을 쌓고 좋은 후생을 원하라고 설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방식은 종교윤리 면에 이해할 수 있는 자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내지 사회적인 문제로 간취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자신의 업으로 개인적 레벨로서 결착시키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업과 윤회설에서 제공하고 또한 보증해, 더욱 더 차별을 공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불교 문화의 흐름에 관해서 보면 선행을 권해 악행을 퇴치하는 업의 윤리가, 그 근본 정신과는 달리 차별을 긍정하는 논리로서 작용해 온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⁷⁾ 다시 말해서 고대 인도 고타마붓다 시대 이전부터 생각되고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일반 민중 레벨의 업 이론을 소위 일반적 업론이라 이름하고 있다. 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

7) Prof. Dr. Yasuaki Nara: 「ստան්පාටා의 업론(하)」(『인도철학불교학』 제4호, 北海道대학, Hottkaido Japan 1989), pp. 44-45.

을 안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업론은 이같은 일반적 업론 레벨에 시종함이 아니고, 좀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한 레벨의 업 이론이 이해되고 있다. 즉,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자신의 상황을 응시해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 방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축에 따른 물리적인 업의 작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한 주체적인 자기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은 '내 업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여 그 업을 초월하는 길을 찾아 내려고 한다.⁸⁾ 이것이 또 한 레벨의 업론인 실존적 업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불교의 업론을 탐구함에 편의상의 분류에 지나지 않지만, 이같은 분류는 고대 인도의 고타마 봇다 아래 설해 온 불교의 업론의 진실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탐구함과 동시에 오늘 날까지 적지 않은 오해를 초래해 온 불교의 업론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에서 본 나라 야스아키 박사의 이같은 분류 방식에 전면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본 논문을 전개함에 그대로 원용(援用)하기로 하겠다.

III. 『테라가타』의 실존적 업론

불교 최초기 경전 『숫자니파타』 (*Suttanipāta*, 經集) ⁹⁾ 『우다나』 (*Udāna*, 自說經)¹⁰⁾ 등과 함께 『콧다카 니카야』 중에서도 고충 단계에 속하는 자료임이 학계에서도 지적되어 그 가치의 중요성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¹¹⁾ 『테라가타』에서의 실존적 업론이라 볼 수 있는 표현을 찾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함인가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8) 윗 글, p. 48.

9) *Suttanipāta*(『경집』 經集)는 『콧다카 니카야』 제5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5장 72경으로 1,149시문(gāth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에 17경은 시문 이외의 산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숫자니파아타는 최초기 불교 경전 중에서도 문화적, 언어학적 등에서 볼 때 가장 고충(古層)에 속하는 자료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10) *Udāna*(『자설경』 自說經)는 『콧다카 니카야』 제3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흥(感興)경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전체 제8경으로 시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11) Prof. Dr. Egaku Mayeda: 『원시불교 성전 성립사 연구』(Sankibo, Tokyo Japan 1964), pp. 734-735, T. W. Rhys Davids: *Cambridge History of India* 1, p. 197. etc.

먼저 첫 문제점으로 거론 할 「테라가타」의 예문을 원문과 번역문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mahāraso sugambhīro jarāmaccuni vāraṇo
ariyo atthangiko maggo dukkhūpasamano sivo (Therag.421)*

위대한 진리를 알고, 언제나 심원해, 늙음과 죽음을 저지시키는 곳,
성스런 여덟 개로 된 길(팔정도)은 고통을 고요히 정지시키는 행복의 길이다.

*kanmamp kamman ti ñatvāna vipākañ ca vipākato
pañciccuppannadhammānañ yathāvlokadassano*

mahākhemangamo santo pariyosānabhaddako ti. (Therag.422)

그것은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알아,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며,
위대한 평안하고 조용한 길로 인도 시켜, 정적(靜寂)해져 최후에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미가잘라(Migajāla) 장노 비구가 고타마 봇다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팔정도의 진리는 위대한 것임과 동시에 수많은 고통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421 시문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팔정도가 수많은 고통을 없애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문에서 평안하고 정적에 들어 행복하게 된다는 것과, 영원의 평안을 의미하는 열반의 레벨로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다 다음 422 시문은 최초기 불교의 업론을 실존적인 레벨로서 해석함에 그 가부와 관계되고 있는 문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422 시문의 포인트는 먼저 첫 번째로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알아”라는 표현의 내용에 관계되고 있다.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보충해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행한 결과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이 행한 행위는 그 나름대로의 업력(業力)이 작용해 그 뒤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업을 업으로서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안다는 것은, 현실 문제로서 자기 자신에게서 야기된 상황을 자신의 업의 결과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살펴 본 사항은 일반적 업론의 철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본 일반적 업론은 사물을 제3자적, 즉 객관적으로 전생의 업이 현생의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의미에서 숙명론으로 되어 있지만, 불교 특히 「테라가타」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을 때는 결코 그같은 의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존재 또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업의 결과라고 실존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고통들을 초월하려고 하는 강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 문제로, 그와 같이 자신이 처해있는 지금의 상황을 자업의 결과라고 실존적으로 관찰하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의의 깊음을 부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가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론적으로서는 실로 간단하지만, 실체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들 인간이 현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이 입학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그 어떤 학교에도 갈 곳이 없다든가, 또는 사업에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짊어지게 되어 자신의 집도 회사도 전부 채권자 손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된다든가, 혹은 지금까지의 명예도 지위도 모두 손실되어 버렸다든가, 또는 사랑하던 자식이 죽었다든가 등등, 이같이 불행한 입장에 직면한 사람으로서는 실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믿고 싶지 않은 것인 것이다. 실로 꿈 속에서라도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봉착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현실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자신만의 실책이 아닌 많은 사회적인 다른 원인 등도 있음에 틀림이 없으나, 지금 현재 자신에게 봉착해 있는 문제를 사회가 나쁘기 때문이다. 또는 정부의 정책이 나쁘기 때문이다. 혹은 거래처가 나쁘기 때문이다 등등 그 자신의 책임을 추구치 않는 행위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제반 사항에 관한 시시비비는 별개의 문제로 놓아 두고,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버린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현실이기에, 그것을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기 어려운 제반 사항에서도 그것을 현실이라고 인정치 않으면 안 된다. 이같은 제반 사항을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는 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같은 악몽 같은 사실을 실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필자는 생각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문은 한층 더 설명해,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즉 일체가 연기(緣起)의 도리에 의해 생

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원인 및 조건이 합치해 그같은 현상이 생겨났음이 분명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업이며, 그 과보라고 받아 들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일체가 연기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 욕망에 흐려져 있는 목적 의식을 생각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¹²⁾ 역으로 말하면 자아 욕망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하나의 강한 마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므로 결국 그같은 의미에서 위에서 살펴 본, 첫 번째 포인트와 지금 본 제2의 포인트는 같은 의미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업을 업으로 알고 그 과보를 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연기법에 조명해 그것을 분명히 관찰해 가는 것을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이 보는 것이 행복에의 길임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의미에서 고찰할 때, 이 시문은 실제로 자기 실존적으로 긍정해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복함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업을 업으로서 알고 그 과보를 과보로서 알아,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서 나의 숙업(宿業)에 의한 결과로 알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업을 업으로서 알고, 과보를 과보로서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실존적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인과(因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본 일반적 업론의 레벨이며, 자기 자신이 전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행했다던가, 아니면 해당 조상이 악행을 행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실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명해 간찰하는 것이며, 크나큰 평안과 안녕에 인도되어, 마음과 정신이 정적해져, 최후에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과 같이, “만약 나의 조상이 나쁘기 때문에”라고 생각 한다면, 그 마음에 정직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어디

12)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에 관한 해석은 종래의 연구를 답습하면서 이미 Prof. Dr. Yasuaki Nara가 앞에서 본 「슈타니파아타의 업론(상)」(「藤田宏達博士還暦記念論集 인도철학과 불교」平樂寺書店, Kyoto Japan, 1989) 같은 제목(하) 「인도철학불교학」 제4호(北海道대학, Hottkaido Japan 1989)에서 확실히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의 파알리어 경전 원문인 “yathābhūtam” 및 “yathābhūtañānādassana”의 다수의 용례를 파알리 불교 성전에 Prof. Shoji Mori가 채록해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기에 그 논문에 대한 명칭 등에 관한 것만을 소개키로 하겠다. 즉, 「원시불교에서의 진실과 인간관」(상)(하) (『평화와 종교』庭野平和財團平和研究所REPORT 7, 8호, Tokyo Japan 1988, 1989, p. 5 이하에 개재.) 이 논문에 대한 간결한 분석도 이미 Prof. Dr. Yasuaki Nara에 의해서 윗글 논문 (하) p. 61 이하의 주석에서 논술하고 있다.

끼지나 실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마음에 평안함과 고요함, 최후의 행복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거론한 421부터 422의 시문의 바로 앞의 419 시문이다. 즉 위에서 본 422 시문에서는 업을 업으로 알고, 과보를 과보로 알라고 함인데,实은 이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맥의 흐름에서 418 시문부터 그 파악리어 원문과 번역문을 보도록 하자.

niyyāniko uttarano taṇhāmūlavisosano
vi samūlam āghātanaṃ chetvā pāpeti nibbutim. (*Therag.418*)

평안과 정직의 경지에 인도돼, (피안에) 건너감이며, 애착의 눈을 말려버린 곳의 가르침은 독의 눈과 형장을 끊어버려, 사람들을 평안과 정직의 경지를 얻게 한다.

aññāñamūlabhedāya kammayantavighātano
viññānam pariggāheñānavajirani pātano. (*Therag.419*)

그것은 무지의 뿌리를 끊어버림에 의해서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괴해.

제반의 식별 작용을 고집함에 대해 예지(지혜)의 금강저(라는 무기)를 던진다.

먼저 여기에서는 “무지의 뿌리를 끊어 버린”(aññāñamūlabhedana)다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무지의 뿌리를 끊어 버린다고 함은 이 시문 후반에 있는 제반 식별작용, 즉, 요컨대 인간의 자아욕망을 휘둘러 모든 것에 집착하는 사고방식, 즉 선처를 예지(지혜)의 금강저(라는 무기)를 던져서 멀해버린다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욕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무지를 파멸시킴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멸시킴”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자업자득, 업과 그 과보의 필연성이라 말하면서 업의 조정 장치를 파괴시킨다 함은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업을 조정하는 장치”라 함은 kammayanta이다. Yanta(Skt.yantra)라 함은 기계 또는 기관을 의미함이다.¹³⁾ 요컨대 기계라고 함은 정확한 조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업이라고 함은 반드시 어떤 원인인 행위에 의해 그에 상당하는 결과에 결부시킨다고 하는 업의 필연성을 “업을 조정하는 장치(기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고찰한다면, 이 업의 필연적인 작동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은 업의 필연한 작동을 부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라 할 수 있다. 즉,

13) *Pali English Dicctionary*, London, 1970, p. 550.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자업의 결과라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업의 작동을 자아욕망에 의해서 뒤틀려 있다던가, 또는 자기 멋대로 해석함을 중지해 ‘있는 그대로 관찰함’이다. 각자가 무지의 근본을 불법이라는 지혜의 금강저로 깨어 버리는 것으로서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멸시킴”(kammayantavighāṭana)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멸시킴이라 함은 위에서 본 422 시문인 “그 것은 업을 업으로서 알고, 또 업의 과보를 그 과보로 알다”와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업을 업으로서 알고”라고 말하며, 또 한편으로서는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일견 모순된 표현은 실은 모순이 아니라, 업과 그 과보의 필연성에 대한 작동을 실존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업의 필연적인 작용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극기해 가는 것에 연쇄되는 점에 관해서 또 『테라가타』 574-575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evāyam vattatī kāyo kammayanttena yantito,
sampatti ca vipatyantā, nānābhavo vipajjati. (*Therag.574*)

이 신체는 이와 같이 존재하고 업을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 작용되고 있다.
번역은 멸망으로 끝나며(성자필멸), 각종의 존재는 파멸한다.

ye 'mapi kāyapi māmāyanti andhabālā puthujjanā,
vaddhenti kaṭasimpi ghorapi, ādiyanti punabbhavam. (*Therag.574*)
이 신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둡고 어리석은 범부들은
공포의 묘지에 가득차 다시금 미망의 생존을 받는다.

즉, 업과 과보의 필연성에 의해 이 몸은 뒤흔들려 휘말리고 있다. 그러므로 번성한 자는 반드시 멸하는 것이며, 생존, 다시 말해서 미망의 존재로서의 우리들은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의미에서 업을 극기하지 못한다면, 언제 까지라도 윤회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며, 반대인 경우에는 그 업을 극기한다. 즉, 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파멸시킨 자는 두 번 다시 미망의 생존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문 422와 419는 똑같이 불교의 구극적 경지로서의 열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이며,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만약 일반적 업론이라 한다면 그 업이 미망의 생존을 저지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하고 있는 시문 419도 위에서 본, 422와 마찬가지로 실존적 업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574-575도 역시 업과 그 과보의 필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존적 업론을 시사함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찰할 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테라가타」 346-348은 다음과 같이 실로 명확한 언설로 표명하고 있다.

yat mayā pakatamp pāpamp pubbe aññāsu jātisu
tan dānīdha pavāhemī / evamditthi pure ahū. (*Therag.346*)
“나는 이전에 다른 많은 생애에서 지은 죄악을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물로 씻어내자”고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sutvā subhāsitamp vācam dhammatthasahitamp padamp
tathamp yāthāvakamp atthamp yoniso paccavekkhisam. (*Therag.347*)
(그러나 고타마 봇다는) 자주 말하고 있었던 말과 진리를 함께하는 시구를 듣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따른 의의를 올바르게 관찰해 반성했다.

ninhātasabbapāpomhi nimmalo payato suci
suddho suddhassa dāyādo putto buddhassa oraso. (*Therag.348*)
나는 지금은 모든 죄악을 씻어버려 오염이 없으며,
맑고 깨끗해, 청순하다. 청정한 상속자이며, 고타마 봇다의 진실한 제자이다.

과거세에 자기 스스로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물로 목욕해 씻어 내는 것으로 인해 청정해진다는 당시 인도의 일반적인 관념이며, 통속적인 관념이다.¹⁴⁾ 그러나 불교 경전이 이같은 세속적 레벨의 의례에 의해 자신이 지은 악업이 씻어져 흘려버릴 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¹⁵⁾ 이에 불교는 있는

14) 이것은 이 「테라가타」의 자매편인 「테리가타」 236-251 시문에 걸쳐서 푼니카(Punnika) 비구니와 바라문파의 문답에서도 확실시 되고 있다. 즉, “바라문이여! 당신은 왜 이렇게 추운데 물 속에 있습니까?”라고 푼니카 비구니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노인도 젊은이도 거의가 악업(pāpakkamma)을 행하게 되면, 그는 물 목욕을 함으로 인해 악업이 씻겨 나가 없어지게 된다(pāpakkammā pamuccati)”(*Therig. 237-238*)고 바라문이 물 목욕에 의한 악업 소멸을 설명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인도인들은 물 목욕으로 인해 일체의 죄업이 없어져 깨끗하게 된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하다.

15) 즉, 위에서 본, 「테라가타」 238과 같은 바라문의 대답에 반론해 푼니카 비구니가 말하는 것과 같이 만약 바라문이 말하는 것처럼 물 목욕이라는 통속적 의례에 의해 자신이 지은 악업 일체가 소거 된다면, 일체의 악업을 행한 사람들은 모든 악업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 물속에는 악업뿐만 아니라, 선업까지도 씻어내 강물에 흘러 내려가 버릴 것이다 (*Therag. 241-234*). 이같은 무지한 내용들을 설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같은 무지한 것은 신속히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초기 파알리 불교 경전으로 고타마 봇다의 근본 사상을 탐구함에 그 가치적 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숫타아니파아타」 249에서도 세간적 의례에 의해 자신의 몸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대로의 진실에 의한 의의, 이것은 당연하게 연기설이겠지만, 이 연기설의 도리를 정확하게 관찰함으로 인해, 수많은 생애를 걸쳐서 지어 온, 악업 일체를 씻어 버릴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 업론에서의 업은 업과 그 과보를 뽑아내지 않는 한, 자신이 지은 업을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그것을 “죄악을 씻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의 행위에 의해 생긴 업의 영향력을 물리적이 아닌 종교적, 실존적인 레벨로서 극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전혀 오염이 없는 청정하고 청순의 상속자 고타마 봇다의 실제자가 된다고 하며, 업을 극기한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를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태라가타』 제 80에서 웃가(Ugga)라는 장노 비구는 실로 확실한 형태로 실존적인 레벨에서의 업의 소멸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yamp mayā pakatamp kannamp appamp vā yadi vā bahu
sabbam etamp parikkhinamp, n' atthī dāpi punabbhavo 'ti.(Therag.80)
근소하든 많은 간에 네가 지은 업은 모두 완전하게 소멸되었다.
지금은 미망의 생존을 두 번 다시 반복함은 없다.

이 시문을 설한 웃가 장노 비구는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웃가시의 바이슈야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 후 고타마 봇다의 설법을 듣고 출가해 깨달음을 얻었다. 위에서 본 제 80시문은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계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¹⁶⁾

이 시문은 실로 명확하게 업의 소멸에 의해 윤회에서 해탈함을 말하는 실존적 업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업의 소멸의 원인에 관해서 아무 것도 설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체의 업이 소멸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소멸한 것이 과거세의 업인지, 또는 현세에서 지어진 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의 문 맥으로 보아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세의 업이든, 현재의 업이든간에 일체의 업을 극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조명을 비추어 보면, 예컨대 자신이 차별을 받는 부락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숙업에 의함이라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여 그 업이 소멸되었다고 말했을 때는 차별을 받는 부락이나 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물리적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에 의한

16) Malalasekera,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Vol. I, PTS. London, 1974, p. 335;
三枝充惠편, 『인도불교인명사전』, 法藏館, Kyoto Japan, 1987. p. 47; 赤沼智善, 『인도
불교고유명사사전』, 法藏館, Kyoto Japan 1967, p. 701.

번민 등을 극기했다고 하는 의미로서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종교적 실존적 세계이므로 한층 더 현실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힘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삼밋티굿타(Samitigutta) 장노 비구는 위에서 본, 웃가 장노 비구가 말한 『테라가타』 제 80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명확한 형태로 실존적 업론을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amp mayā pakatamp pāpamp pubbe aññāsu jātisu,
Idh' eva tam vedaniyamp, vatthu aññamp na vijjatīti. (*Therag.81.*)

예전에 다른 많은 생애에서 내가 지은 악업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과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생존을 야기시킬 일체의 근거¹⁷⁾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시문은 앞에서 본, 『테라가타』 제 422문과 함께 『테라가타』에서 가장 확실한 형태로 업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시문을 유게로서 남긴 삼밋티굿타 장노 비구는 고대 인도 사위성(sāvathī) 중의 양가인 바라문 가정에서 출생해 성장한 후, 불교에 출가했다. 출가 후 그는 한센(Hansen)병에 걸려, 대중들과 격리된 병동에서 주거하게 된다. 그때, 고타마 봇다의 제자 중 10대 제자로 불리우는 사알리풋타의 병문안과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다.¹⁸⁾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삼밋티굿타 장노 비구를 감싸고 있는 일상 생활 및 신상적인 환경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이 시문이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삼밋티굿타 장노 비구는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바라문의 양가에서 태어나 성숙해, 뜻한 바 있어 불교에 출가해 수행한다고 하는 선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센병이라는 중병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수행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 불법을 듣고 배워 드디어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이 시문이라고

17) 이 근거(vatthu)에 대해 파알리어 경전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tassa kammassa vīpaccaṇa okāso añño khandha-ppabandho”(“Paramattha-Dīpāñī Theragāthā-Attakathā”, vol. I, p. 186); “andre Ordnung”(Neumann); “other ground for ill”(C. A. F. Rhys Davids); “other basic cause”(Norman); Prof. Dr. Hajime Nakamura, 『불제자의 고백』, Iwanami Press, Tokyo Japan, 1989, No. 8 printing, p. 242.

18) Malalasekera,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Vol. I, PTS, London, 1974. p. 1050; 三枝充惠편, 『인도불교인명사전』, 法藏館, Kyoto Japan 1987, p. 97; 赤沼智善, 『인도불교고유명사사전』, 法藏館, Kyoto Japan, 1967, p. 576.

추정한다면, 실로 그는 자신이 처해있는 고통적인 상황을 많은 생애, 즉 멀고 먼 과거세에서 만들어진 악업의 결과라고 실존적으로 자각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론도 아니며, 남에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현재를 불문(佛門)이라고 하는 진리 탐구 수행의 길에 들은 사문으로서의 수행 정진을 더했고, 과거세의 악업을 극기해 평안하고 정직한 길을 걸었다. 한센병에 의한 고통과 불안을 극기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불교 성전이 행복하다고 설하고 있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함이다. 즉, 이것이 “지금 현재를 생존하는” 것¹⁹⁾이며, 깨달음의 생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 생애의 생존을 불러 일으켜야 할 근거는 이미 존재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걸쳐서도 자신의 업은 이미 고갈해 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성치 않는다는 것이다. 금생에서 그는 내세의 남을 만한 악업의 소인을 그 무엇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같은 업을 받아들이는 사고 방식은 후대에 이르러 성립되었다고 하는 파악리에 불교 성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이같은 업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연기설에 의한 제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여 관찰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업을 자기 실존적인 자세에 연쇄시켜가는 것이다.

IV. 맷는말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고찰할 때, 불교에서의 업론을 일반적 레벨로서의 업론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존적 · 자각적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불교 창시자 고타마붓다가 설한 최초기 불교 성전에서 설해 온 업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해와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실제 문제로서 업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반 사항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종래의 불교에서 업론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실시해 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근저에는 업론

19) “지금 현재를 생존함”이란, 과거세와 단절함도 아니며, 실존적 내용에서 그 차이를 보이면서도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에의 응시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자기 자신을 어찌 됐던간에 업을 업으로서 받아들여, 종교적 생활방법을 그 곳에서 전개시켜가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중심은 “지금 현재”에 존재시켜 생활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란, “불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초보적인 통속설에 지나지 않으며, 극히 레벨이 낮은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²⁰⁾ 등의 선학자들의 연구에 의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판단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문헌학이나 교리학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인 면에서 더하여 폭넓은 범위에서의 실제적 생활 속 업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필자는 주장하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탐구해온 것과 같이 『테라가타』에서는 명확한 형태로 실존적 업론을 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 언급한다면, 최초기 불교에서는 이미 실존적 레벨의 업 사상이 형성·발전해 온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음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²¹⁾

주제어: 업(業), 일반적 업론, 실존적 업론, 교리학, 문헌학, 테라가타, 최초기 불교, 카르마, 캄마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20) Prof. Dr. Kougen Mizuno: 『불교의 기초지식』, Shunjusha, Tokyo Japan, 1971, pp. 124, 130-131.

21) Prof. Dr. Itsai Funahashi도 지적하고 있으며, Prof. Dr. Yasuaki Nara도 Funahashi설을 찬동하고 있다. :「불교에 있어서 업론의 한 측면」(雲井昭善編, 『業思想研究』, 平樂寺書店, Kyoto Japan, 1979) p. 56; Prof. Dr. Yasuaki Nara: 「슈타니파아타의 업론(하)」(『인도철학불교학』 제4호, 北海道대학, 1989년) p. 50.; Prof. Dr. Egaku Mayeda: 「불제자의 출가 동기와 깨달음의 태도-『테라가타』·『테리가타』-의 세계」(雲井昭善編, 『業思想研究』, 平樂寺書店, Kyoto Japan, 1979), pp. 257-263.

<Abstract>

最初期佛教經典『テーラガーター』における實存的業論

Existential theory of Karma in Early Buddhism scriptures *Theragāthā*

Seok, Ohjin(The Eastern Institute)

從來の業論研究では、道徳的因果關係があるがままに見るという意味に解されてきた。つまり、過去世の業によって農夫なりに生まれることが決定される、という一般的業論の意味に解し、縁起を時間的な業の因果ととらえる見方であり、後代の業感縁起の萌芽がみられる、とされる。

つまり仏教の業論を便宜上、「一般的業論」と「實存的業論」に分けて考えた方が分かりよいという視座を設定した。

一般的業論とは、古代インドから現代にまでさまざまな形で伝わっている民間信仰的な業についての考え方と慣行である。その内容については、自業自得と業果の必然性を原則とする普通の業論であり、仏教文化の歴史において現在まで伝承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

奈良康明博士は業論の基本を倫理的機能にあるとし、同時に、それが仏教文化の歴史の最初期から差別に連なる事例のあることも指摘している。

しかし、仏教文化の流れにあるのはそうした一般的業論のみではない。もっと宗教的な意味合いから業が理解されているとされる。自分のおかれた今の状況は「現実」である。それが生じたことについては種々の歴史的、社会的原因と条件があるが、仮にそれを理論的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で、「他人ではなく、なぜ、ほからぬこの私がかかる苦に遭わなくてはならないか」という疑問は解けない。その現実を改善する努力は無論必要だし、努力は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改善されたとしても、それは「神意論」や「宿命論」、「偶然論」などで説明したところで、今をより良く生きるために役に立たない。ここに實存的な業の受けとめ方がでてくる。すなわち、「實存的業論」という言葉をもって、宗教的にレヴェルの高い業論が仏教に発展し、それが今日の仏教祖師たちの業論にまで伝承・発展したことを論じられた。

つまり「實存的業論」とは、あくまでも現實の自分の狀況を見つめ、「今、ここに」ある自己の「意味」を主体的に認識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れは過去－現在－未來の時間軸に沿う物理的な業のはたらきを見るのではない。あくまでも「今」を起点とする主体的な自己認識の問題である。自己のすべては「私の業だ」と自らに自覺し、認識するところにその業を超える道を見出そうとするものをいう。

いずれにしても、ここで取り上げた『テーラガーター』の当該の詩文は仏教が最初期から当時の一般的業論に基づきながら、實存的に受容する業論を説き始めていたことの一証とみてよいものであり、これは縁起の思想の發展と相呼応するものと考えてよいものであろう。そして、業論は次第に縁起説とのかかわりを深め、かつ實存的な業論も多彩に述べられるようになるが、本論考は、その一端を示したものである。

Key Words: 業, 一般的業論, 實存的業論, 教理學, 文獻學, *Theragāthā*, Early Buddhism, Karma, Kamma